

# 세계 최강 '금소법'도 못 막은 ELS 사태

## 경제포커스



김홍수  
논설위원

요즘 은행에 가서 펀드나 ELS(주거연계증권) 상품에 투자하려면 1시간 정도는 각오해야 한다. 온갖 서류에 서명하고, "상품 설명을 듣고 이해했다"는 문구를 친필로 쓰고, 구두로 녹취까지 해야 하기 때문이다. 투자 절차가 한층 까다로워진 것은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 이후부터다. 2019년 외국 금리 연계 파생상품(DLF) 사태, 2020년 라임·유폴머스 사건 이후 금융회사의 고위험 상품 판매에 제동을 걸기 위해 금소법이 제정됐다.

성을 설명하기가 난감할 것이다. 더 무서운 칼도 구비돼 있다. 금융회사가 상품 설명을 제대로 안 하고, 부당한 권유를 하면 수입의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설명 의무와 관련한 과실 여부를 피해자가 아니라 금융사가 입증해야 한다. 은행이 자필 서명과 녹취에 목을 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금소법은 금융사의 불완전 판매가 드러나면 몇 년 뒤에도 투자자가 "계약 해지권"을 갖도록 했다. 은행, 증권사가 고위험, 고난도 투자상품 판매 후 문제가 생기면 어떤 식으로든

온갖 제도 장치 마련해도 고위험 상품 판매 못 막아 수수료 목매게 만드는 은행원 '성과평가' 수술해야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만든 것이 금소법이다. 가히 세계 최강 소비자 보호법이라 할 만하다.

그런데도 은행들이 고위험 홍콩 H지수 ELS를 금소법 시행 후 무려 19조원 어치나 팔아치웠다.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은행원에겐 금소법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 은행원들의 업무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인 KPI(Key Performance Indicator)가 그것이다. KPI 점수가 높아야 승진도 하고 보너스도 두둑이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영

야 KPI 점수를 더 높게 받는다. 금융당국의 실태 조사 결과, A은행의 경우 KPI에서 1000점 만점에 410점이 고위험 상품 판매 실적과 관련한 배점인 것으로 드러났다.

위험한 상품을 걸러내라고 만든 은행 상품위원회는 실적에 목매는 영업 부분 대표의 목소리에 눌려 제 구실을 못 한다. KPI는 이런 구조에서 판매가 결정된 상품을 많이 팔라고 재촉하는 구조로 배점이 짜여 있다. 그러니 은행원들은 은행에 더 많은 수수료를 안겨 주는 고위험 상품 판매에 목을 맬 수밖에 없다. 은행원 입장에서 고위험 상품을 많이 팔수록 자기에게도 이익이다. 나중에 문제가 되면 은행이 손실금을 물어주니 은행원의 '도덕적 해이'가 만개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과거 고위험 상품 판매와 관련한 금융사고가 터질 때마다 고위험 상품 판매를 부추기는 KPI의 문제점이 지적됐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은행이 무분별하게 고위험 상품을 팔고, 대규모 손실이나면 정부가 은행 팔을 비틀어 보상하는 것은 세계 10위 경제 대국의 위상이 걸맞지 않은 후진적 방식이다.

KPI 가산점을 투자 고객이 이익이 날 때만 부여하고, 권유 상품으로 고객이 손실을 볼 경우 과거 받았던 보너스를 토해내게 하는 제도(claw back)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은행원이 고객에게 투자를 권할 때 자기 돈 투자하는 것처럼 신중해지지 않겠다.

## 김준의 맛과 섬 [181]

### 여수 아귀탕



"아귀탕 한 그릇 주세요." 이렇게 자신 있게 1인분을 주문할 수 있는 식당을 만나면 행복하다. 나 홀로 여행은 늘어나지만, 나 홀로 현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 허물며 맛까지 좋다면 더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 식당을 찾아내고서도 주인 눈치를 보기 일쑤다. 그래서 아예 일행이 곧 온다며 2인분을 시키는 일도 적잖다. 1인분을 주문했는데 아귀살이 푸짐하다. 어민들은 봄철에 산란을 위해 연안으로 올라오는 아귀를 그물을 놓아 잡는다. 여수에서는 전날 그물을 쳐 두었다가 다음 날 새벽에 걷어 온다. 그렇게 잡은 아귀는 여수 중앙시장에서 경매가 이루어진다. 중앙시장은 선어 경매로 유명한 곳이다. 철에 따라 민어, 병어, 삼치 경매가 이뤄진다. 아귀는

겨울철에 유독 좋은 자리를 차지한다. 여수, 순천, 광양은 물론 광주에서도 아귀 음식을 한다는 식당 주인들은 이곳을 즐겨 찾는다.

아귀는 자망 그물을 이용해 잡는다. 지금은 질기고 튼튼한 나일론 그물을 사용하지만 옛날에는 쉬 끊어지는 면사 그물이었다. 매년 새 그물을 준비해야 했다. 그물 한 폭을 마련하려면 시간과 노력은 물론 비용도 만만치 않았다. 이런 그물로 민어나 조기 등 고급 생선을 잡아야 수지가 맞았다. 그런데 아귀나 물메기가 걸려 올라오면 선원들이 입장에선 화가 날 일이다. 그 당시에는 꽃게도 그물을 훼손하는 불청객이었다. 돈이 되지 않는 생선을 바다에 던졌다. 아귀가 물탱병이라는 명예롭지 않은 별명을 얻은 이유다. 어쨌든

값이 나가는 귀한 생선은 아니었다. 이제는 몸값이 다르다. 마산 아귀찜이 만든 나비효과일 수 있다. 중앙시장 위관장을 가득 채운 아귀를 두고 경매인들 눈치와 손가락이 분주하다. 어장이 가깝고, 시장이 지척이니 인근 식당에서 내놓은 상차림은 말할 것도 없이 만족스럽다. 좋고 깨끗하고 공정한 음식을 강조하는 슬로푸드에서 주목하는 것이 '푸드 마일'이다. 식재료가 생산되는 곳에서 소비되는 곳까지 거리를 말한다. 그 거리가 짧을수록 지역을 살리고 어민을 살리는 것이다. 여수 중앙시장 옆에서 아귀탕을 찾은 이유이다. 전남대 학술연구교수

## 社 說

### 끝나가는 이재명당 공천, 마지막까지 비명횡사·친명횡제

2021년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 이재명 대표에 맞섰던 비명계 박용진 의원이 4·10 총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박 의원은 경선 결선의 여론조사와 관리당원 투표에서 모두 상대방을 앞섰으나 의원 평가 '하위 10%'에 포함돼 30% 감점을 받아 탈락했다. 같은 날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된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변호를 맡았던 김동아 변호사는 공천됐다. 김 변호사는 원래 청년 오디션에서 경선 후보 3위 내에 들지 못해 탈락했으나 하루 만에 최고위에서 이를 반복, 경선에 나간 뒤 승리했다.

두 개의 경선 결과는 이번 민주당 공천을 관통한 '비명횡사·친명횡제'라는 원칙을 재확인해줬다. '시스템 공천'은 명분일 뿐이었다. 박용진 의원을 비롯해 김영주 국회 부의장, 박광온 전 원내대표, 김한정 의원 등 민주당 내에서 의정 활동이 뛰어나고 평가되는 비명계 현역들이 현역 평가 하위 10%, 20%로 분류되는 불이익을 받았고 그것이 친명계 도전자들에게 경선에서 패배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 이 의원들은 대부분 친명계 지지층으로부터 작년 9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 때 찬성표를 던졌다고 의심받은 사람들이었다.

경선 기회라도 부여받은 것은 그나마 관참은 경우였다. 임종석 전 의원, 홍영표 의원은 아예 컷오프됐다. 현역이나 중진들만

불이익을 당한 게 아니었다. 친명계 김남국 의원이 국회에서 코인 거래를 한 사실이 알려진 후 쇠신을 요구했던 민주당 청년 정치인 8명은 '개팔' 등에 의해 '코인 8적'으로 낙인찍힌 끝에 총선에 나서려던 7명은 모두 컷오프되거나 경선에서 패배했다.

반면 친명계나 이 대표에 대한 충성이 검증된 사람들은 대접을 받았다.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등 이 대표 관련 사건을 맡은 변호사 6명도 출마했는데 현재까지 2명 공천이 확정됐고 2명도 순항중이다. 방송에서 이재명 대표를 자신의 이상형이라고 꼽은 친명계 여성 도전자는 행정 구역 이름도 제대로 모르는 지역구에 단수 공천됐다.

비명을 배제하고 친명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무리수를 남발하다 보니 공천 심판 격인 공관인 관계자 중 두 명은 불공정에 항의하다 사퇴했고 한 명은 불공정에 노골적으로 기함하다 물의를 일으켜 물러나게 됐다. 승부 조작에 동원됐다고 의심받은 여론조사 기관이 중도 퇴출되기도 했다. 민주당 국회의장, 총리 출신의 원로들이 "공천이 불공정하다"며 이 대표에게 항의했지만 소용없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닌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던 이 대표의 다짐은 이뤄졌다. 이 제 남은 것은 이 모든 공천 과정에 대한 국민의 평가다.



### 전공의 사직 사태로 환자들 전문·종합병원으로, 이게 정상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 파행'은 하루빨리 해결돼야 하지만 이 파행이 역설적으로 삼급종합병원, 중형병원(병원·종합병원), 의원으로 이어지는 의료 전달 체계를 정상으로 돌려놓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서울 '빅5' 병원 등 삼급종합병원들은 수술실 가동률을 절반으로 줄이고 중증·응급 환자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증상이 경미한 환자들은 중형병원으로 발길을 돌리면서 환자가 자연스럽게 '분산' 되고 있는 것이다. 이게 정상적인 의료 전달 체계 모습이다.

이번 사태로 대형병원들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2021년 기준 삼급종합병원 의사 인력의 37.8%가 전공의였다. 특히 서울대 병원은 무려 46%에 달한다. 삼급병원이 비용 절감을 위해 수련생에게 과도하게 의존한 것이다. 그러다 전공의들이 파업을 하니 입원실·응급실에서 경증 환자를 중형병원 등으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다. 평소 응급실을 찾는 환자의 절반 인력이 응급실

에 올 필요가 없는 경증 환자라고 한다. 전공의 집단 사직이 삼급종합병원이 제 역할을 찾게 한 것이다. 대형병원들은 하루빨리 전문의 중심으로 바꾸고 이번 사태가 끝나더라도 중증·응급 환자 중심으로 운영해야 한다.

이번에 역할을 재발견한 곳이 전문병원을 비롯한 중형병원이다. 중형병원은 평소에도 전문의 위주로 운영해 전공의들 집단 행동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번 사태와 관계없이 정상 진료와 수술도 가능하다. 대형병원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곳도 많다. 대형병원의 공백을 잘 메우고 있는 것이다. 이번 기회에 특정 질환이나 진료 과목에 대형병원 수준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병원'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번 사태로 그동안 빅5 병원에 경증 환자가 지나치게 많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정부는 대형병원이 중증 환자만 보더라도 경영에 문제가 없도록 해주고, 중형병원은 더 경쟁력을 갖도록 지원해야 한다.

### 삼성전자 홀로 고전, '초격차' 줄고 '속도전' 밀리는 K반도체

올 들어 대만 TSMC, 미국 마이크론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 주가가 연일 급등하는 속에서도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인 삼성전자가 9% 하락해 대조를 이루고 있다.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 반도체에 필수적인 HBM(고대역폭 메모리) 경쟁에서 뒤처진 데다, 주류형 시스템 반도체를 생산하는 파운드리 분야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HBM을 독점 공급해 K반도체의 체면을 세우고 있었는데, 얼마 전 마이크론이 4세대를 건너뛰고 5세대 HBM3E를 양산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해 이마저도 위협받게 됐다. 세계 1위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가 HBM에선 3등으로 추락할 처지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세계 최초로 12단 HBM3E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지만, 시장 반응은 냉랭하다. 외국인은 최근 5일간 삼성전자 주식을 965만주나 팔아치웠다. 양산 가능성과 생산성, 엔비디아 납품 가능성에 낮은 점수를 주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2022년 3월 세계 최초로 3나노 반도체를 개발, 파

운드리 시장을 개척할 게임 체인저라고 자랑했지만,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2021년 18%에서 2023년 11%로 오히려 뒷걸음질했다. 경쟁자들 도전도 거세지고 있다. 미국 인텔은 "2027년부터 1.4나노 공정을 양산해 2030년까지 세계 2위 파운드리가 되겠다"며 '삼성 추월'을 선언했다. 메모리 반도체 패권을 한국에 빼앗긴 일본은 TSMC·인텔과 손을 잡고 범용 메모리 반도체와 2나노급 시스템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다. 일본 정부가 지원한 대만 TSMC 구마모토 공장은 착공한 지 불과 1년 10개월 만에 준공하는 가공할 속도를 과시했다.

반면 한국은 반도체 기술 경쟁에서는 '초격차'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고, 차세대 생산 라인 구축을 위한 속도전에서도 경쟁국에 밀리고 있다.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2019년에 터를 잡았지만 토지 보상, 용수 공급 문제 등으로 지연돼 아직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팽배 공장도 승진탑 문제로 5년을 허비했다. 경쟁국들은 민관(民官)이 국가 차원 총력을 벌이는데, 어떻게 경쟁을 이겨낼 수 있나.

## "민주당 DNA 변했다" 下

# [더 지독한 좌파]가 [덜 지독한 좌파] 잡아먹었다 ... 정치권 침투성공 후 이젠 국회로 축소 '꿈틀'

[침투]와 [내부 와해 공작] ... 해방 공간부터 거둬온 수법 [군자산의 약속] 이후 정치권 내부 파고 들다 [김대중 민주당]에 동지 들고 ... 노무현 때 '꿀꺽' 경기동부연합, 싸구려 공작으로 민노당 집어삼켰다 [광우병 난동]과 [탄핵 정변]도 이들 [극렬 끈들] 노림수

안재홍은 떠나고, 여운형은 무력화됐다

8.15해방 이후 한국 정치사에서 [덜 지독한 좌파]가 [더 지독한 좌파]의 [내부 와해 공작]에 골짜기 넘어가곤 했다.

안재홍의 [중도 우파]와 여운형의 [중도 좌파]가 [건국준비

위원회]를 만들었다. 극좌파가 침투해 수를 불렀다. 조직개편 때마다 이들이 요직을 가로챘다. 안재홍은 떠나 버리고, 여운형은 무력화됐다.

### 자유민주주의 [죽이려는] 민주화운동

1960년부터 1987년까지의 [민주화운동]에서도 비슷한 [갑수룩 급진화] 현상이 일어났다.

한국 민주화운동은 본디, 1948년의 이승만의 자유 대한민국 건국에서 비롯됐다. 이것으로 한반도 최초의 ☆ 자유민주주의 ☆ 시장경제 ☆ 근대화 ☆ 인권 체계가 들어섰다.

1960년,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만들려던 자유당 강경파가, 3.15 부정선거를 했다. 이 반(反) 헌법적 처사에 항거해, 4.19 학생혁명이 났다. [민주화운동]의 시작이었다.

본연의 민주화운동은 이처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을 [살리려는] 것이었다. 그것을 [죽이려는] 운동이 아니었다.

### 걸 다르고 속 다른 [이중 전술]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 그것을 죽이려는 [더 지독한] 파가 [본연의 민주화운동]을 타고 앉았다. 주사파

와 마르크스-레닌주의자들의 침식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념적 정체를 숨기고 길로는 ★ 민주화 ★ 자주화 ★ 평화통일을 내걸었다. 방법에서도 폭력혁명보다, 대한민국의 민주적 절차를 활용했다.

1987년 민주화 후 그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이, 걸 다르고 속 다른 [이중 전술]로 세(勢)를 키웠다.

### 침투해 잡아먹는 [그들의 흑역사]

① 1987년 6월 항쟁 때 그들은 [대통령 직선제]와 [김대중에 대한 비판적 지지]를 내걸었다. 넥타이 부대 등 [국민 보편]의 여망에 편승한 것이다.

② 이를 계기로, 그들 586 운동권은 지하에서 지상으로 우뚝 솟아올랐다. 김대중 민주당에 동지를 들였다. 노무현 때는 김대중 민주당을 받아들였다. 한국 야당의 주류가 된 것이다.

③ 2001년, NL 지도급 700여 명이 총복 과실에 모였다. [군자산의 약속]이란 것을 내놓았다. 정치권에 들어가 ★ 민족민주 정당 ★ 자주적 민주 정부 ★ 연방 통일 조국을 만들자는 것이었다.

④ 이 방침에 따라 그들은, 남이 만든 정당 (민노당)을

내부 와해 공작]으로 가로챘다. (통합진보당)이 생겼다. ★ 광우병 난동과 ★ 탄핵 정변이 일어났다. 이 일련의 기획들을 통해, NL은 마침내 거대한 공룡(恐龍)으로 컸다.

⑤ 2024년 현재, 586보다도 더 세다는 아들 [한총련 + 경기동부연합 + 아스팔트 선동꾼]들은 이제 곧 국회에 입성할 것이라고, 언론들이 연일 전한다.

### 국회 물리면, 대한민국 뇌수 감염되는 것

역사는 묻는다. "당신들은 이 [갑수룩 급진화] 추세에 어찌할 작정인가?"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위원 / 전 조선일보 주필

뉴데일리 칼럼 더보기

이영송 칼럼: 천리도 정세성은 뭘까

류근일 칼럼: 세습왕조 김씨조선의 노선전환

평안것들, 가련 벗어 던졌다 - [최영수 평화통일론]에서 [노골적 무력용인론]으로.

newdaily.co.kr 뉴데일리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칼럼으로 2024년 3월 12일 게재 되었습니다.